



한국후가공위원회(가칭) 설립회의개최

김인호 동양상사지기인쇄 대표 위원장 선임

제책, 라미네이팅, 다이커팅, 패키지 등 후가공인쇄사 및 후가공솔루션 제작·공급사들이 모여 한국후가공위원회(가칭) 설립에 나섰다. 한국후가공위원회(가칭) 준비모임은 지난 4월 19일 인쇄정보센터 2층 제2강의실에서 후가공위원회 설립회의를 개최했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김인호 초대 위원장

박찬우 크리아츠 대표(TC130 WG12 전문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김진배 대한인쇄기술협회 회장 축사, 경과보고, 회칙안 검토, 회장 선출, 운영위원단 선출, 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인호 동양상사지기인쇄 대표가 초대위원장(사진)으로 선임됐다.

김진배 회장은 축사에서 “오늘 설립회의 개최를 축하하며 향후 협회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활발한 활동을 통해 업계 발전에 이바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인호 위원장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국내 인쇄후가공업계는 상업적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벽을 쌓고 기술교류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중국을 비롯한 외산 장비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라며 “늦어도 3년 이내 우리가 네트워크를 통해 활발한 기술교류로 서로의 기술 수준을 높이고, 후진인력양성에 나서지 않는다면 세계시장에서 국산 후가공 기술과 장비는 자취를 감추고 말 것이라는 절박함이 오늘 한국후가공위원회를 설립하게 했다. 이제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의 네트

워크를 구성해 세계와 경쟁해야 한다. 함께 해외시장에 나가 시장을 개척하고 우리의 기술수준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후가공위원회 측 관계자는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한국후가공위원회는 라미네이팅, 실크인쇄, 금박 등 인쇄 후가공 분야별로 1~2인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해 분과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ISO/TC130 한국위원회 활동 가운데 하나로 우선 3개월 일정으로 인쇄후가공 표준용어를 정리해 사전으로 편찬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잡지나 신문 형태의 소식지를 통해 위원회 구성원들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성과 더불어 활발한 기술교류와 홍보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창립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